

성명	이창희	수험기간	2019.12.~2024.07.
학교	중앙대학교	전공	전자전기공학부
키워드	민소고독점		

2차 공부

【민사소송법】

☑ 동차시기(54.xx)

1차성적이 우수해서 별다른 고민을 갖지 않고, 3월부터 이창한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는 사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5월에는 기초GS를, 6월에는 실전 GS를 수강하며 통상의 동차와 같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방대한 통합 민사소송법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였고, 사례집을 중심으로 사례집에 수록된 쟁점을 회독을 통해 숙지했습니다. 또한 GS에 나온 논점만이라도 맞추자는 생각으로 시험때까지 매일 1시간씩 5, 6월에 수강한 논점들에 대해 1,2번 문항과 3,4번 문항으로 나누어 답안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차 시험인 58회 민사소송법 시험에는 GS에 나왔던 논점들이 많이 나왔으나, 잘 소화하지 못해서 그런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기득시기(66.66)

동차 발표전까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차시기에는 기본서를 회독하지 못하고 사례집만 회독해서 기본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통합 기본서를 회독하였습니다. 불합격 발표가 난 뒤에는 이창한 선생님의 심화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기본강의를 다시 듣는 것은 부담스럽고, 이론적으로 완성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심화강의를 수강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 기본서 회독을 반복하고, GS의 논점들에 대해서도 헛갈리거나, 복잡한 논점의 경우 심화강의 내용과 필기노트를 활용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득생활을 시작하며 통합 기본서의 논점 중 150~200개를 추려서 평일에 서로 말하면서 암기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암기 스터디로 인해 여러 논점에 대한 확판검을 제대로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득생활을 하며 매일 2시간씩 민사소송법쓰기를 진행했습니다. GS, 기출, 사례집 등 다양하게 쓰며 문제풀이 실력을 높이고, 시험 전주까지 진행하여 감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매일쓰기를 진행하였으므로, 따로 사례집은 풀지 않았고 매일 양을 정해두고 기본서 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에는 2주에 1회독을 목표로 하였고,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는 1주에 1회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시험에서는 66.66점을 받게 되었으며, 문항별로는 65/50/51/34 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2번 문항이 17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 이와 올해 시험의 1번과 관련해 분석한 내용은 밑에서 다루겠습니다.

☑ 삼시시기(54)

삼시 일차성적이 좋지 못하여서 학교 복학을 하였고, 3월 한달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허겁지겁 GS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득때와 같은 매일쓰기를 하기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기본서 회독과 주말에 진행하는 GS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실력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기득과 사시에 비해 삼시 때의 성적이 낮은 점은 기득때와 같이 매일쓰기를 진행하지 않고, 기본서 회독에 전념한 결과 문제풀이 감이 떨어졌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54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시시기(74.66)

삼시가 끝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겨울방학 계절학기까지 수강하게 되어 민사소송법 공부는 1월 말 즈음 되어서야 시작했습니다. 기득과 같이 매일쓰기를 하려고 했는데 스터디원의 부재와 의지가 생겨나지 않아 기본서 회독과 더불어 사례집 풀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일 기본서와 사례집의 비중을 6:4 또는 7:3정도로 잡고 기본서와 사례집 회독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사례집과 기출문제 핸드북 모두를 회독하고, 당해 전주차의 GS복습과 전달의 GS복습까지 평일에 진행해야 했기에 사례집을 풀때에는 논점을 잡고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빠르게 풀어나갔습니다. GS복습은 당해 전주에 푼 것은 목요일, 금요일에, 전 달의 것은 화요일, 수요일에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복습은 문제를 읽고, 목차를 잡고 답을 내어 답안과 비교해보고, 기본서 해당내용을 읽어보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GS나 사례집을 풀면서 나온 논점에 대해서, 기본서의 내용과 잘 연결이 되지 않아 목차 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례가 나온 기본서의 내용에 목차를 적어두어 기본서 회독하며 숙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판례에서 여러 논점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판례가 적힌 기본서 부분에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을 모두 적어두어 하나의 판례가 크게 출제될 경우 논점 누락을 대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1다80449판례의 경우 낙찰자선정무효확인 소의 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 부제소합의의 적법성, 직권조사사항유무, 지적의무 유무의 다양한 논점이 하나의 문제에 출제될 수 있음을 기본서에 표시하여 기본서 회독시 유의했습니다.

기득때와 더불어 올해에도 기출도 스터디원과 함께 쓰기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표는 기출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소의 경우 한번 나온 논점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잘 준비하지 않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미 출제된 논점도 다시 출제되고 있으며, 강사님들의 GS와 다르게 기출문제는 그 출제도와 답이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더러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연습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논점은 명확해 보이는데 답이 갈리거나, 출제 의도가 모호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의 수험 준비에 있어서도 기출문제 쓰기는 한번 고려 해볼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에서는 총 74.66의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항별 점수는 73/47/61/43점으로 1번 문항의 점수가 30점 만점 24.33점으로 높았습니다 59회 2번과 관련해 분석한 내용은 밑에서 서술하겠습니다.

【회로이론】

☑ 동차시기(89)

학부때 공부했던 회로이론 과목에 대해 자신이 있었고, PF로 바뀌며 공학과목의 난이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회로이론을 선택과목으로 정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진입해 20년 1차는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던 관계로 테마회로이론책을 회독했습니다. 동차시절에는 실전GS를 하나 수강하며 GS와 문제집의 틀린 부분만 회독하는 방식으로 대비하였고, 높은 점수로 50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 기득시기(55)

동차때에는 남은 시간에 회로공부를 하였으나, 기득때부터는 안정적인 패스를 위해 매일 1시간정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10시에 퇴근하기 전 9시부터 공부가 손에 잘 안잡혔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기본서를 회독하고, 예제문제를 푸는 식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회로는 시험이 가까워지면 이론공부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따로 10페이지 이하의 분량 정도의 암기 분량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푸리에 급수, 푸리에 변환, 버터워스 필터, 트랩회로 등)

양진목 선생님의 실전 GS를 수강했으며 틀린 문제를 체크해두고 민사소송법과 같이 평일에 복습하는 방식으로 GS를 활용했습니다. 양진목 선생님은 강의 도중 여러 계산기 꿀팁이나, 문제풀이 꿀팁을 많이 알려주셔서 집중을 하여 수업을 들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지고는 회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1주정도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시험장에서는 미리 정리해둔 노트와 손풀기용 문제를 따로 준비해서 민사소송법 시험이 끝난 뒤 가벼운 마음으로 회독하고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 삼시시기(93) 및 사시시기(100)

삼시를 늦게 진입하게 되어 항상 뒷전으로 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진목 선생님의 실전 GS를 수강하였고 기득때와 마찬가지로 GS위주로 시험을 대비하였습니다.

사시때에는 이때까지 풀었던 GS와 회로이론 기출 120제를 활용하며 공부하였습니다. 2차시험을 치르기 한달에서 3주 전에는 5급 기술고시 문제가 나오는데, 문항 수는 다르지만 실제 시험과 같이 시간을 두어 실전연습을 하였습니다. 삼시와 사시 모두 기득때와 같은 방법으로 10페이지 내의 암기노트를 준비하고, 손풀기용 문제를 들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 계산기 팁

회로이론은 계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풀이과정이 맞아도 답이 맞지 않으면 0점을 난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TI계산기는 페이지를 늘릴 수 있으므로, 각 문항별로 한 페이지씩 총 4페이지까지 설정하여 계산을 진행할 때 해당 페이지로 가서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ctrl-doc).

시험을 시작할 때의 Document setting은 scratchpad와 Document의 세팅값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둘다 engineering format, calculation mode는 exact으로 두지만, scratch pad는 Polar, degree값을 출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각도를 얻고자 할 때 document에서 복사하여 scratch pad에 붙여넣기를 하여 빠르게 각도와 크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입력해두는 함수는 병렬계산을 위한 함수와, pf를 구하는 함수, 라플라스 함수를 저장했습니다. 라플라스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라플라스 변환 결과를 입력하며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p(x) := integral(-x * e^{-(s*t)}, t) | t=0)$

【답안지】

☑ 민사소송법

논점정리 부분은 답안지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으로 결론부분과 아울러 가장 잘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점정리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논점과 답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들에 비해서도, 스캔된 모답과 비교할 때도 상당한 약필이었습니다. 글씨를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어려우므로 논점정리와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필속을 조금 줄이고 잘 보이게 쓰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음의 크기를 키우고 자간을 넓혀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수를 줄이더라도 깔끔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볼펜심은 원래 에너겔 0.7을 사용했는데 글씨도 작는데 뭉개지는 느낌이 들어 조금 더 얇은 사라사 0.7로 바꾸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시간이 남아 검토를 할 때에도 논점정리와 결론 부분이 잘 드러나게 썼는지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회로이론

회로이론 과목은 답을 맞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계산실수가 잦은 타입이었습니다. GS에서 모든 문항에 대해 풀이를 마치고 시간이 남는 상황에서도 시험을 종료하지 않고 계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평소에 계산연습을 많이 하였고, 시험에서도 틀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위 누락에 감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고득점 비결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전제로서의 공부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두번의 도약이 있었습니다. 동차시기가 끝나고 심화강의를 듣고 이를 체화하며 매일쓰기를 했을 때에 이론적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리며 좋은 점수를 받기위한 전제로서의 공부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과 달리 점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험을 치러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삼시에서의 민사소송법 점수에 큰 충격을 받고 주위의 합격자들에게 답안작성법에 대해 배우고, 사례집 회독을 하며 이를 연습하였습니다.

첫번째는 논점정리입니다. 논점정리는 채점위원 교수님이 답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는 부분으로, 당해 문제에 대한 논점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정확한 답을 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논점정리만으로 채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1번과 같은 경우, "재산적 손해부분과 위자료 부분이 다른 소송물로 재산적 손해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는지, 항소심에서 청구액의 확장이 소변경으로 적법한지, 상소이익이 인정되어 5천만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는 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소송물 논점, 단순병합에서의 상소불가본원칙 논점, 소변경 논점, 상소이익 논점을 전부 검토하였으며 다른 소송물이고, 재산적 손해부분도 이심되고, 소변경으로 적법하고, 상소이익이 인정되어 손해액 확장이 가능하다는 답까지 보여주게 되는 논점정리 서술이 됩니다.

두번째는 선결논점 등의 부가적 논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59회 2번 문항을 20점 점수로 환산했을 때 17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시험을 치른 다른 분들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항소심 반소에 관한 문제였는데, 흔히 알고 있는 항소심 반소에 대한 논점뿐만 아니라 일반반소요건에 대한 부분도 비중 있게 고려하여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기본적인 선결논점에 대해서도 점수가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놓치지 않으려 사례집이나 GS에 나오는 논점에 대해 선결논점을 파악하고 기본서에 적어두어 회독시 숙지하였습니다.

이번 문제 1-2번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소송상 화해의 법적성질, 기판력뿐만 아니라 확인의 이익 존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부가적 논점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1점이라도 받으려는 생각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3번에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부정되어 실질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답안을 전개하였습니다. 실질적 증거력에 대해 설문이 묻고 있어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일반론을 작성하고 형식적 증거력이 부정되어 실질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아 지급 명할 수 없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렇게 선결 논점이나 부가적 논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하여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요구할 수 있는 답안지를 작성하려고 하였습니다.

회로이론 고득점 비결

회로이론 과목은, PF제 실시 이후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 과목이나, 공학과목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회로이론 관련 과목을 수강한 적 있다면 회로이론 선택을 추천 드립니다. 회로이론은 평소에 예제를 풀며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GS에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이 틀리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므로 GS문제를 풀 때에도 시간종료 전까지 계속 검산하여 계산 실수를 잡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산실수가 잦았으며 매년 시험을 치르면서도 하나 이상의 실수를 시험장에서 고쳐나갔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푸는 법을 이용해 검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풀 때에는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답을 냈다면 시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검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TI계산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고득점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양진목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며 TI계산기의 기능에 대해 배우고 평일에 GS복습을 하거나 따로 예제를 풀면서 이를 체화시키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남들과 같은 문제를 풀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풀거나 검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

동차시기에는 허리디스크가 찾아왔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쟁자들은 계속 나아가는데 나는 침대에 누워만 있으며 뒤쳐진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허리디스크를 건디며 동차생활을 마치고, 기득생활부터는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삼시부터 헬스장을 다니면서 어느정도 극복하며 수험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험기간이 장기간 레이스인 만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통해 체력을 기르며 공부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득 때 2점, 삼시 때 3점 차이의 탈락으로 소위 말하는 소수점 단위의 점수가 모자라 아쉽게 탈락했다고 여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계속 공부방법을 바꾸어 나가며 다음 시험에 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채점에 운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합격을 기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방법, 답안지 등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번의 불합격으로 학습된 패배감이 있었지만 계속 개선하다 보면 언젠가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 합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의 특성상 뒤도 없다고 느껴지고, 막다른 길에 내몰려 지쳐있으실 분들께, 저의 경험과 주위 사람들의 경우로 보아 항상 의심하고 고민하며 끝까지 나아간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정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